



보도 일시	2022. 12. 1.(목) 11:00 < 12.2.(금) 조간 >	배포 일시	2022. 12. 1.(목)
담당 부서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책임자	과장 최우혁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라정인 (044-203-4276)

반도체 업계,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다

- 업계 주도 교육기관인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 -
- 초대 원장에 이석희 前SK하이닉스 사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반도체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업계 주도로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출범식을 12.1(목) 판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개최했다.
- 이날 출범식에서는 아카데미 초대 원장으로 추대된 이석희 前 SK하이닉스 사장에 대한 위촉식과 산업계(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실리콘마이터스), 학계(중앙대, 명지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간 아카데미 운영 지원 협약식도 함께 열렸다.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 12.1(목) 16:30~17:05, 판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9층
- ◇ 참석 : (정부) 산업부 제1차관, (업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리콘마이터스, 원익IPS, 실리콘마이터스, (학계) 중앙대학교, 명지대학교,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관계자 30여명
- ◇ 주요내용 : 출범식, 업무협약 체결, 비전 발표

- 산업부는 지난 7월 21일(목)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컨트롤 타워인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을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과 함께 추진해 왔다.
- 아카데미는 4년 이상 소요되는 대학 인력양성의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전형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 산업계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자재 확보 등 준비과정을 거쳐 '23.4월부터 제2판교 글로벌 비즈센터에서 설계, 장비·부품·패키징 등의 분야에서 총 26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맞춤형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반도체 업계와 학계, 산업부는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과정 지원과 학점 연계 등 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 기업은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사, 실습 장비 환경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내교육과정을 활용한 반도체 기본 교육은 취업생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 재직자들의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 대학 내 반도체 과정이 없거나, 있어도 여러 여건으로 수강하지 못한 대학생·취준생을 위해 아카데미에 학점연계과정을 개설하고 및 이수자에게 단기 전문학위를 부여하는 등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반도체 전공트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30개 대학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현장능력 향상을 위한 인턴십 등을 포함한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 아카데미는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이수자들이 반도체 소부장·설계기업 등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카데미 초대 원장은 SK하이닉스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석희 원장이 맡게 되었다.
- 이 원장은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의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인텔과 KAIST 교수를 거친 산업계 대표인사로 반도체산업협회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원장으로 추대하였다.

- 이 원장은 비전 발표를 통해 “아카데미가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대·협력·교류·생태계 중심의 4대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 장영진 1차관은 “반도체 아카데미는 소자·소부장·설계 등 반도체 전분야의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계 주도 최초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 대학 인력양성의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전형 현장인력을 짧은 시간에 집중 양성할 수 있어, 추후 다른 업종으로 반도체 아카데미 모델을 대폭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 [붙임] 1.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식 개요
2.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운영 협약서



□ **개최 계획**

○ (일시) 12.1(목) 16:30~17:05(35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9층

○ (내용) ①출범식 개최 → ②MOU 체결* → ③비전 선포

* 업계 4명(소자·팹리스·소부장 대표기업), 학계 2명, 기관 1명, 협회 1명 등 총 9명

- (MOU 내용) 기업의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과정 지원 및 대학과의 학점연계 등을 위한 산학 협력체계 구축

- (비전)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컨트롤 타워

* 주요내용 : 아카데미 비전, 목표 및 4대 추진전략(연대, 협업, 교류, 생태계)

○ (주요 참석자) 산업부 1차관, MOU 서명자*, 업계 CEO, 교수 등

* (업계) 김동섭 사장(SK하이닉스), 김선식 부사장(삼성전자), 이현덕 대표(원익IPS), 김동천 대표(실리콘마이터스) / (학계) 박지현 부총장(명지대), 주재범 부총장(중앙대) / (전담기관) 민병주 원장(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협회) 이창한 부회장(반도체협회)

□ **세부 일정**

시간		추진 내용	비고
16:30~16:35	(5)	▪ 출범식 개최	
16:35~16:45	(10)	▪ MOU 체결 및 기념촬영	업계(4), 학계(2), 전담기관 및 협회
16:45~16:50	(5)	▪ 축하말씀	정부, 산업계
16:50~17:00	(10)	▪ 아카데미 비전 선포	이석희 아카데미 원장
17:00~17:05	(5)	▪ 출범식 세레모니	깃발전달

산업계 주도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협약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실리콘마이터스(이하 “반도체업체”), 명지대, 중앙대(이하 “대학”),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전문기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산업계 주도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협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협약의 내용)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에 따른 부속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 ① “아카데미”는 반도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반도체업체, 대학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을 운영한다.
- ② “반도체업체”는 반도체 아카데미에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사, 실습 인프라 등의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 ③ “대학”은 아카데미 교육 수료생의 학점인정, 교육과정 연계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양성에 대해 협력한다.
- ④ “산업부”와 “전문기관”은 반도체 아카데미를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이 원활하게 양성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①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중도에 수정 및 철회할 수 있다.

- ② 본 협약서의 내용은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5조 (기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9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